영어어문교육 *제30권* 2호 2024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4.30.2.85

고등학생 기초영어학력 향상을 위한 예비교사 역량강화 훈련 및 교육실습의 효과

이유진[*]
(강원대학교)
윤택남[**]
(춘천교육대학교)

Lee, Yoo-Jean, & Yoon, Tecnam. (2024). Enhancing basic English 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effectivenes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and teaching practice.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30*(2), 85-109.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a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subsequent teaching practice aimed at enhancing basic English ability among high school students. It was conducted with 12 pre-service English teachers in Gangwon Province, Korea. The program consisted of a 14-week training session linked to the 'Utilizing ICT for English Education' course, followed by a 6-week teaching practice. To assess its impact, a combination of varied data collection methods was employed throughout the semester, including weekly in-depth team discussions, a detailed survey, and an extensive whole class conference. The analysis focused on how both training and teaching practice influenced the pre-service teachers' ability to develop their students' basic English skills. Descriptive statistics calculated with SPSS Statistics 29 analyzed Likert-scale survey data, while qualitative data from team discussions and the conference were thoroughly and systematically coded. Findings clearly indicat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instructional skills of the pre-service teacher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the ongoing challenges in basic English education and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teaching strategies that accommodate the diverse learning needs of high school students. Ultimately, these results affirm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development in teacher training programs to adapt to educational demands and societal changes effectively.

[pre-service teacher/basic English ability/teacher training/teaching practice, 예비교사/기초영어학력/교사훈련/교육실습]

---

[*] 제1저자 [**] 교신저자

Ⅰ. 서론

지난 2023년 5월, 엔데믹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었지만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나라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분야에서 역시 팬데믹 시기는 물론 엔데믹 이후에도 기초학력의 저하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관련 사례로 팬데믹 정점기 교육부(2021a)의 보도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중3 및 고2 학생 2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인원은 전년 대비 4.1%에서 6.4%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어교과의 경우 2019년에는 72.6%가 보통 학력 이상에서 2020년 평가 결과 63.9%로 수준이 하향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자는 3.3%에서 7.1%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비대면 수업 및 온라인 등교와 같은 수업 부족으로 기초학력 미달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김경미, 신창원, 2023; Kim & Seong, 2022).

당시 교육부(2022)는 이러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후속 조치 및 학습 지원 강화 차원에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라는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과학습 결손 방지를 위해 소규모 방과 후 수업을 개설하고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으며 일부는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은지, 정성수, 2023). 아울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활용한 '교육 튜터링'을 운영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교육부, 2022b).

한편, 기초학력 보장과 최저성취기준 도달이라는 목표로 도입한 방과 후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사한 학습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자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202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e-나라지표, 2023)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영어과목에서 '보통' 이상의 성취도(총 4단계 중 '3'은 '보통', '4'는 '우수' 학력을 의미함)를 보인 학생의 비율이 2021년 74.5%에서 2022년에는 66.3%로 감소하였다. 중학교 3학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영어과목에서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보인 학생 비율이 64.3%에서 55.9%로 줄었다.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보면, 2019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 과목에서 '보통' 이상의 성취도를 보인 학생 비율이 78.8%, 중학교 3학년은 72.6%였다. 이는 학력 저하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곧 기초학력을 위한 책임지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부에서 도입한 예비교사 활용 '교육 튜터링' 사업의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지도할 예비교사의 역량(예 - 교수역량, 언어능력, 의사소통역량, 교과전문지식 등) 강화가 우선적으로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이들을 교육하는 양성기관에서 제공하는 역량강화 훈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교과와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예비교사의(교육실습의 일환으로서의) 튜터링 활동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 훈련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두 가지 연구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고교생 기초영어학력 향상을 위한 중등 예비교사의 역량강화 내용과 효과는 무엇인가?
2.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중등 예비영어교사의 교육실습 효과는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역량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Battelle for Kids, 2010; UBS, 2016). 미래교육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한 이영희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교육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인성, 감성, 소통, 공감 능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강조해야 하며, 또한,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와 교육과정,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 마련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사회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역량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교사의 역량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온 바, 국내에서는 주로 초·중등교사의 역량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예 - 박용호 외, 2012; 임유나, 홍후조, 2018; 정제영 외, 2016),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손원숙 외, 2021). 다행히 최근에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도출한 바, 다음 표 1은 현장교사 또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제시된 역량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교사 및 예비교사 역량

연구	대상	핵심역량
김희규 외(2016)	중등 교사	- 교수 역량(전문성 역량, 학습지원 역량, 수업 역량) - 학생 상담 역량(심리상담 역량, 생활지도 역량, 진로지도 역량) - 교직 실무 역량(학급경영 역량, 교무관리 역량, 교직소양 역량) - 교육 공동체 형성 역량(리더십 및 소통 역량, 학습 공동체 역량)
문은경 외(2016)	중등 예비 교사	- 교과전문지식 - 전문 소양(성실/정직성, 유연성, 자기계발, 윤리의식, 열정) - 학생과의 관계 형성(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 학생존중/신뢰)

		- 의사소통(표현력, 전달력, 경청) - 학급 운영 및 관리 - 수업계획 및 개발(진단/분석, 조직화) - 수업진행(수업개관, 수업진행, 강의전략, ICT 활용능력) - 평가 및 피드백(평가, 피드백) - 다문화, 세계화, 정보화
박용호 외(2012)	중등 교사	- 대인관계역량군(교사와 학생 관계 이해, 학생 간의 관계 이해) - 교과전문성역량군(교과지식, 교과 외 지식, 교육과정개발, 현장연구능력) - 학생이해역량군(학습이론 이해, 발달이론 이해, 학습자 이해) - 교수학습역량군(교수설계 및 개발, 수업운영, 평가) - 의사소통역량군(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 상담역량군(상담기술, 생활지도, 진로지도) - 행정/경영역량군(학급경영 기술, 학교운영 이해, 사무처리)
임유나, 홍후조 (2018)	초·중등 교사	- 교육과정·수업역량군(교육과정역량, 수업역량) - 학생지도역량군(생활지도역량, 진로지도역량) - 학교공동체 운영 역량군(학교·학급경영 역량, 교직실무역량) - 교직생애관리 역량군(변화대응역량, 교직관리역량, 자기관리역량)

위의 표 1에 제시된 연구들은 역량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였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역량이고, 또 하나는 중등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다. 예를 들어, 박용호 외(2012)의 연구는 중등교사의 핵심역량을 크게 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대인관계역량, 교과전문성역량, 학생이해역량, 의사소통역량, 상담역량, 행정/경영역량으로 구분된다. 이는 중등교사에게 미래 인재로서의 역량과 교사로서의 직무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김희규 외(2016)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들은 중등교사의 역량을 교수역량, 학생상담역량, 교직실무역량과 교육공동체형성역량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박용호 외(2012)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게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교수역량은 물론 직무관련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명확하게 역량군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량군을 같은 수준에서 제시한 연구도 있었다. 예를 들어 문은경 외(2016)는 일반적으로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역량과 중등예비교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모두 필요한 역량(예 - 교과전문지식, 전문소양, 의사소통, 학습운영 관리 능력 등)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미래 인재라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역량은 물론, 중등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특수한 역량이 제시되어 있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장경숙(2023)의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언급하며, 2027년까지 정확한 기초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 예방을 위한 국가-지역-학교 연계 안전망 확충을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기초영어학력이 부족한 고교생들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연구가 초등 및 중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 경험, 학습부진의 누적, 개별 학생 요구에 맞는 지원 부족,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부재, 영어학습 요구와 교육과정의 불일치 등을 들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엔데믹 이후의 교육환경에서 영어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현장교사 및 예비교사의 맞춤형 교수학습 역량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는 예비교사의 교육실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그들의 훈련과 준비가 현재와 미래의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질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교육실습의 개념과 특징

고등 교육은 21세기의 요구 사항과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교실 환경은 교사가 지식과 기술을 쌓고 변화하는 요구와 시간에 적응할 것을 요구한다. 즉, 미래사회 역량을 갖춘 학습자를 키워내기 위한 선결 조건은 훌륭한 역량과 자격을 갖춘 교사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양성대학은 교육실습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숙련된 현장교사의 지시와 가이드에 따라 학습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고 있다. 교육실습은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종류(예 - 참관실습, 종합실습 등)로 운영되지만, 그 핵심은 예비교사가 실제경험을 통해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학습 및 탐구를 경험하는 것이다(백순근, 함은혜, 2007). 교육실습의 효과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꾸준히 검증되어 왔으며,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2
교육실습의 효과

연구	교육실습
김신영, 송미영 (2008); 이숙자 (2008)	수업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수업전문성 확보, 학생평가에 대한 전문성 수준도 향상
백순근, 함은혜 (2007)	교육적 가치 함양 및 교사로서의 자질 습득
장찬익(1990)	교사양성과정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습득, 교사로서의 역할과 자질 형성
정식영 외(2004)	학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의 습득 및 교사로서의 교육관 및 사명감 확립
정혜영(2004)	아동관과 교직관에 대한 인식 전환, 학교관에 대한 인식 확대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교사로서의 품성과 능력 함양, 이론의 연구 및 실천, 이론의 적용 및 점검, 교직 적성 점검

이처럼 교육실습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해 보는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한다(정혜영, 2008). 예비교사는 다양한 교수전략을 사용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구현하며, 경험 많은 전문교사의 멘토 역할을 통해 수업, 학생관리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이 과정은 대학이 아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예비비교사는 학교문화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나 갈등 상황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최근의 시대적 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육실습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원격교육 필요성은 예비교사들의 원격교육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는 교육실습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윤소영 외(2020)와 안정현 외(2021)는 초등 예비교사와 실습지도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이 플랫폼은 실습 관리와 피드백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예비교사들이 실습 현황과 일정을 쉽게 확인하고, 지도교사들이 실습생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실습의 전통적인 방식을 현대기술과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교육실습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김서연 외(2021)는 중등 예비영어교사들의 원격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온라인 교육실습을 진행하였고, 실제로 예비교사들의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수업실행, 그리고 학생지도 능력이 신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생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으로 수업 준비가 부족하였으며, 예비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역량강화 훈련이 사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특히 기초영어학력 저하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영어교사에게 필요한 역량강화가 중요하며, 이는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량강화 훈련을 고교생 대상 교육실습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는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시도로 특히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적용을 통해 예비교사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2023학년도 2학기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한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개설된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을 수강하는 2~3학년(2학년 7명, 3학년 5명) 총 12명의 예비 영어교사가 참여하였다(남 4명, 여 8명). 학기 시작 전 연구의 목적, 한 학기동안의 역량강화 훈련과 교육실습 방향,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사항 등이 공지되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12명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또한, 연구자 중 한 명은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을 지도하는 교수자로 또 다른 연구자와 함께 예비교사들에게 어떠한 역량 함양이 필요한 지에 대해 상

의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구하고, 학교를 섭외하며, 세부 훈련 과정을 계획하였다.

2. 연구 절차

1) 교과목과 연계한 중등 예비영어교사 역량강화 훈련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과 연계하여 연구자는 중등 예비영어교사들에게 매주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하였다. 한 학기(총 15주) 중 기말고사 주간을 제외한 총 14주간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이 훈련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고 훈련 내용도 예비교사들에게 영어로 제시되었다(표 3 참조).

표 3
주차 별 세부 훈련 내용

차시	세부 내용
1	**[Comparative Analysis of distance educ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Overview of current Korea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 Issues regarding basic English ability, minimal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high school credit system, after-school English supplementary instruction
2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 -**First step**: Analyzing target students, class contents, types of online tool selection + Designing an engaging and interactive classroom environment
3	- Using AI-based image generators in an English classroom - Strategies to enhance writing skills in underachievers through key grammar and vocabulary practice
4	- Types of digital platforms to communicate with secondary school students - Planning the overall structure of a class (Developing a class syllabus) - Hands-on workshop: Creating online class posters and logos with AI-based tools
5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I]** - **Second step**: Developing a lesson plan + Selecting class textbooks/materials
6	- Reviewing and refining class syllabus and lesson plans – Clarifying and enhancing course goal(s) and detailed descriptions, and evaluation criteria - Strategies for managing weekly two-hour classes and effectively interacting with students
7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II]** - **Third step**: Applying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techniques, Modifying and presenting class materials effectively for students' needs and wants
8	**[Making a class poster, logo, and introductory video]**
9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V]** - **Fourth step**: Managing unexpected situations in class
10	**[How to make an interactive classroom by using AI/online tools]** - In-service teacher seminar I
11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V]** - **Fifth step**: Effective online evaluation 1

	- The use of AI-based tools to develop questions for personalized tests/performance assessment - Utilizing AI to develop test questions based on student proficiency levels - Adjusting test question complexity using AI tools
12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VI]** - **Final step**: Effective online evaluation 2 - The use of ChatGPT as an automatic scoring tool *How does it work? *How accurate is it? *What are merits and flaws form T's and Ss' points of views?
13	**[How to manage a blended learning class]** - In-service teacher seminar II
14	[Whole class conference – Pre- and in-service teachers' roles in the AI era] - How will schools and English education change? - How will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corporated with the ICT-based English class, be implemented effectively? - Strategies to enhance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among secondary school students

학기 시작 전 연구자는 2~4학년에 재학 중인 예비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현재 사회의 요구와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교사로서의 역량강화에 있어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28명이었으며, 여기에는 이전 학년도에 동일 교과목을 수강한 예비교사 6명의 응답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주차 별로 세부 훈련 내용을 확정하였다.

예비영어교사들은 매주 ICT 수업 시간 중 팀 별로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훈련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방과 후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학기 말인 14주차에는 12명의 예비교사와 함께 전체 컨퍼런스(whole class conference, 이하 홀 클래스 컨퍼런스)를 진행했으며, 한 학기 동안 팀 별 멘토링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과정에 있어 발생했던 어려움과 해결을 위해 했던 노력, 긍정 또는 부정적인 경험, 향후 예비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되는 훈련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 고교생 대상 교육실습

학기 시작에 앞서 연구자가 속한 지역의 교육청 협조를 구하여 예비영어교사가 진행하는 교육 튜터링 프로그램(실제 명칭은 폭 [POC: Piece of Cake] 빠져드는 방과 후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 이하 POC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 고등학교를 섭외하였으며(여러 학교가 섭외되었으나 예비교사의 수가 많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한 학교만을 선정함), 해당 학교 교사들과의 사전 협의 및 회의를 통해 기초학력이 다소 떨어지는 1학년 재학생들 중 POC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추천 받았고, 그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았다. 총 20명의 고교생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으며, 이들의 영어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개인적 특이사항 등을 바탕으로, 그리고 학생들 스스

로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영역을 고려하여 총 6개의 클래스를 구성하였으며, 예비교사 2인이 한 팀이 되어 한 클래스 씩 담당했다. 각 클래스와 관련한 정보는 아래 표 4에 제시 되어있다.

표 4
방과 후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 클래스 별 정보

클래스명	수업내용	학생수준	특이사항	학생수
Class 1 (토끼지)	Listening & Speaking (유명인사의 연설 듣기를 통한 발음, 억양, 표현 익히기 + 영어회화에 다양한 표현 적용해보기)	4~8등급	장기간 해외거주, 성적이 일정하지 않음	2명
Class 2 (IMO: In my opinion)	Listening & Speaking (TED 강연 시청, 다양한 진로에 대한 사고 확장, 영어 토론)	1~2등급	교사의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습동기가 저하됨	3명
Class 3 (핑계고)	Listening & Speaking (복잡한 영어문법을 영어회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해보기)	1~5등급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차이가 큼, 사교육 의존도가 큼	4명
Class 4 (LOL: Learning of language)	Reading & Writing (영어뉴스기사 읽기 및 그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7~8등급		3명
Class 5 (Relight)	Reading & Writing (영어 뉴스기사 읽기 및 '나'만의 진로신문 제작하기)	2~3등급		4명
Class 6 (Kart writer)	Reading & Writing (영어뉴스기사 읽기, 포토뉴스 만들기, 토론문 작성하기)	4~5등급		4명
총계		20명		

Note. '클래스'는 POC 프로그램의 각 세션을 의미하고, '수업'은 그 세션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지칭함

방과 후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실습은 총 6주동안 이루어졌으며(교과목과 연계한 교사로서의 역량강화 훈련 11주차부터), 해당 고등학교 교실에서 매주 2시간씩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예비교사들이 'ICT활용 영어교육' 교과목을 통한 훈련 과정에 있어 배운 내용을 실제에 효율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다. 또한, 수업 준비, 진행, 평가과정 및 학생들 과의 소통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바로 연구자, 그리고 해당학교 자문교사와의 상의를 통해 그 내용을 공유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고교생들의 POC 프로그램 활동 내용은 생활기록부에('진로활동' 내용으로)

기재되었으며, 예비교사들은 6주간 고교생들의 주요 활동 내용 및 발전 사항을 주차별로 기록하였다. 즉, 고교생들에게는 점수로 기록된 성적표가 아닌 글로 기록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주에는 연구자와 예비영어교사가 함께 해당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수료증, 기념품, 그리고 글로 기록된 피드백이 전달되었다(피드백은 생활기록부에 입력 가능한 형태로 영어과 담당교사들에게도 전달되었다). 또한, 각 클래스 별로 많은 발전 가능성을 보인 학생들에게 상장도 수여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총 14주간의 교과목 연계 역량강화 훈련과 훈련 11주차에 시작하여 6주간 이어진 교육실습까지 모두 끝난 이후, 12명의 예비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부록 1 참조). 그러나 이 중 한 명이 학기말에 해외로 출국해 설문에는 최종적으로 11명만이 참여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18개로 교과목 수강에 대한 이유, 주차 별 훈련 내용에 대한 만족도, 세부 수업 능력 함양에 대한 인식, 교육실습 준비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의 인식 등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리커트 척도와 단답형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개발은 공동 연구자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이외 매주 팀 별로 이루어진 토론, 그리고 학기 말 홀 클래스 컨퍼런스에서 연구자와 12명의 예비교사들 간에 나눈 대화내용은 녹음 후 전사되었다.

두 가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예비교사들에게 제공된 설문지 문항들 중 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의 효과,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통해 배운 바를 교육실습에 적용한 효과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SPSS 29를 사용한 기술적 통계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비교사들의 팀별 토론 및 홀 클래스 컨퍼런스에서 연구자와 예비교사들이 나눈 의견들은 공동 연구자와 함께 코딩 작업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추가적으로 제시되었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교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중등 예비영어교사의 역량강화 훈련 효과

먼저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예비영어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ICT활용 영어교육’ 교과목을 선택한 이유로는(설문지 문항 #I-2) “4학년 교생실습 전 학교현장을 느껴보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어서”,

그리고 “온·오프라인 수업능력과 특히 다양한 온라인 툴의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라고 언급한 이들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이외 언급된 이유로는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1명), “내가 바라는 교사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명), 그리고 “나의 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1명)가 있었다.

교과목을 선택하기 전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대해(#I-1) 11명의 예비영어교사들은 모두 반드시는 아니지만 꽤 필요하다는 정도의 생각에서(M = 4.00, SD = .00), 한 학기동안의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I-3) ‘꼭 필요하다’ 라고 응답한 이들이 6명으로 늘어났다(M = 4.45, SD = .70). 즉, 예비교사들이 온·오프라인 수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훈련 이후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총 14주 동안 교과목과 연계하여 진행된 주차 별 훈련의 내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II-4-1 ~ #II-4-14)에 대한 예비영어교사들의 답변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5
주차 별 세부 훈련 내용

차시	세부 내용	Min.	Max.	*M*	*SD*
1	**[Overview of current Korean Secondary English Education] . . .**	3.00	5.00	4.18	.60
2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 - **First step**: Analyzing target students, class contents, types of online tool selection . . .	4.00	5.00	**4.73**	.47
3	- Using AI-based image generators in an English classroom . . .	3.00	5.00	4.27	.79
4	- Planning the overall structure of a class (Developing a class syllabus) . . .	3.00	5.00	4.27	.90
5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I]** - **Second step**: Developing a lesson plan + Selecting class textbooks/materials	3.00	5.00	**4.64**	.67
6	- Reviewing and refining class syllabus and lesson plans . . .	3.00	5.00	4.55	.69
7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II]** - **Third step**: Applying various teaching methods and techniques . . .	3.00	5.00	**4.64**	.67
8	**[Making a class poster, logo, and introductory video]**	3.00	5.00	4.27	.90
9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IV]** - **Fourth step**: Managing unexpected situations in class	2.00	5.00	4.09	.82

10	**[How to make an interactive classroom by using AI/online tools]** - In-service teacher seminar I	2.00	5.00	4.55	.52
11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V]** - **Fifth step**: Effective online evaluation 1	3.00	5.00	**4.81**	.40
12	**[How to prepare for a 6-week blended learning class VI]** - **Final step**: Effective online evaluation 2 - The use of ChatGPT as an automatic scoring tool	4.00	5.00	4.45	.82
13	**[How to manage a blended learning class]** - In-service teacher seminar II	4.00	5.00	4.00	1.10
14	**[Whole class conference – Pre-and in-service teachers' roles in the AI era]**	3.00	5.00	4.54	.69

Note. 평균이 높았던 차시의 평균은 볼드체에 하이라이트로 표시함.

모든 차시에 대한 평균은 4.00 이상으로 훈련 내용 전반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았다고 볼 수 있겠다. 가장 평균이 높았던 차시는 11차시로(M = 4.81, SD = .40), 해당 차시에서는 1) 최근 학교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ChatGPT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읽기 지문이나 모의고사 문제를 개인 맞춤형으로 더 쉽게 또는 어렵게 변형시키는 연습, 2) 기존에 잘 알려진 이야기(예 – '토끼와 거북이')를 다른 관점으로 변형하여 그에 대한 영어토론 질문을 ChatGPT를 통해 생성해내기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다(그림 1 참조).

그림 1
11차시 세부 훈련 내용 일부: ChatGPT를 활용한 수업자료 제작



이와 관련하여 예비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 중심 수업과는 차별화된 방식의 수업을 위해 매주 아이들의 흥미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요...

> ChatGPT 활용을 통해 저희 둘이서는 미처 생각해내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ChatGPT가 던져주니 수업준비 시간은 물론 줄어들진 않지만 준비과정이 재미있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아이들 앞에 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어 해주고 열심히 참여해주니 더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홀 클래스 컨퍼런스, 팀 2)

모든 수업자료나 내용, 평가를 위한 문항을 예비교사 스스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ChatGPT의 효율적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ChatGPT를 통해 만들어낸 자료들을 수업에서 사용해보는 과정을 통해 수업준비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부담감 해소가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1차시 다음으로 예비교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 차시는 2차시로($M = 4.73$, $SD = .47$), 고교생들의 수준 및 특성, 학교 측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수업 내용의 범위와 세부 주제를 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차시와 더불어 5차시 훈련에서 다룬 수업계획서 및 수업지도안 만들기, 수업자료 선정하기 활동 역시 예비교사들 스스로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활동이었다($M = 4.64$, $SD = .67$).

5차시와 동일하게 예비교사들은 7차시 훈련 내용 역시 유용하다라고 평가하였다. 7차시에는 한 차시 수업을 위한 뚜렷한 수업목표를 정하고 이를 고교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고교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수업진행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실질적으로 POC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게 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중에 어떤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수업실행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 예비교사들에게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해당 학기에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진 훈련은 아니었으나,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비교사로서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판단되는 훈련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II-5), 아래 표 6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표 6
설문지 문항 #II-5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의견 요약

응답 주제	응답 내용
행정업무 교육	교사로서의 행정업무 관련한 특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 이해	실질적인 수업 실행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임용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교사 입장에서 고교학점제 시행, 기초학력 저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이 무엇이고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업계획 연습	수업계획서가 실제 수업을 이끌어가는데 제일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이를 작성하는 데에 조금 더 많은 연습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전략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줌 수업 운영 방법
대면수업 전략	대면수업 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 더 많이 배워보고 싶다.
온라인 수업 계획	온라인 수업 방법, 학생 수준에 꼭 맞는 수업 계획을 세우는 방법, 활동지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익힐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수업 중 문제 대처	수업 중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수업에 대해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 외적인 대처 외엔 떠오르는 방도가 없는 듯하여 수업 중 교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콘텐츠 제작	수업내용의 핵심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짧은 영상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음
수업자료 제작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피피티 만들기 전략에 대해 알아가고 싶음

예비교사들은 수업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줌 수업방법, 영상 및 ppt 제작 방법과 같은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로서의 행정업무와 함께 기초학력 저하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같은 현재 교육의 중대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따라서 예비교사들이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예비교사들은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점차 증가하는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기를 희망했다. 이러한 요구는 교육과정이 현 시대에 맞게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 지를 잘 보여주며, 예비교사들을 위한 훈련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계속 발전해야 함을 의미한다.

2.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중등 예비영어교사의 교육실습 효과

1) 교육실습을 통한 영역 별 수업역량강화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은 학기 중반부터(11주차) 총 6주동안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기초영어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POC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실습에 참여한 바, 먼저 이를 통해 자신의 수업역량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자 했다(#III-6 문항). 교사로서 필요한 수업역량의 17개 세부영역 중 '파트너 샘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상의를 통해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M = 4.82, SD = .40)이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III-6-15)(표 7 참조).

다음으로 '파트너 샘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능력'(#III-6-16, M = 4.64 SD = .50),

‘학생들과의 라포 형성 능력’(#III-6-11, *M* = 4.64, *SD* = .67),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 걱정 상담 시 적절한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해주는 능력’(#III-6-14, *M* = 4.62, *SD* = .52)에 있어서도 예비교사들은 많은 향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표 7에 영역별 향상도가 나타나 있다.

표 7
예비영어교사들의 영역 별 수업역량 향상도

	세부 수업역량 영역	Min.	Max.	*M*	*SD*
#1-1.	학생들의 수준, 흥미, 특성을 고려하여 차시 별 수업 계획서를 구성하는 능력	4.00	5.00	4.27	.64
#1-2.	학생들의 수준, 흥미, 특성을 고려하여 한 차시 분의 진도와 수업내용을 정하는 능력	3.00	5.00	4.55	.69
#1-3.	예상했던 학생 수, 수준, 배경(예 – 학생들의 영어 등급, 가정환경, 특이사항) 등의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3.00	5.00	**4.00**	1.10
#1-4.	매주 변화하는 학생들의 기분 및 컨디션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조율하는 능력	3.00	5.00	**4.00**	.77
#1-5.	학생들 간에 개인, 짝(또는 그룹) 활동을 적절하게 섞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원활하게 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능력	2.00	5.00	4.18	.98
#1-6.	수업 스케쥴을 학생들과 효율적으로 잘 조율하는 능력	4.00	5.00	4.36	.67
#1-7.	기존 교재 및 인터넷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자료(ppt, handout, worksheet, rubric 등)를 만드는 능력	4.00	5.00	4.36	.50
#1-8.	AI/온라인 툴(예 - 카홋, 패들릿, 구글공유문서, Grammarly 등)을 수업에 적절히 잘 활용하는 능력	4.00	5.00	4.27	.46
#1-9.	가르친 내용과 관련한 적절한 과제(숙제)를 부여하는 능력	3.00	5.00	4.09	.70
#1-10.	학생들에게 내준 과제(숙제)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능력	2.00	5.00	4.09	.94
#1-11.	학생들과의 rapport(라포) 형성 능력	3.00	5.00	**4.64**	.67
#1-12.	매 수업 시간마다 효율적인 평가방식을 정하고 실제로 학생들의 능력을 잘 평가하는 능력 (예 - 퀴즈/과제/시험의 주기 또는 문제 수 또는 종류 정하기, 출석/참여도 점수와 퀴즈/과제/시험 점수 간의 균형 맞추기)	3.00	5.00	4.18	.75
#1-13.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을 관찰한 후 잘한 점, 아직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점 등을 글로 써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능력	4.00	5.00	4.45	.52
#1-14.	학교생활, 교우관계, 학업적인 측면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 걱정 상담 시 적절한 정보 및 도움을 제공해주는 능력	4.00	5.00	**4.62**	.52
#1-15.	파트너 샘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상의를 통해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능력	4.00	5.00	**4.82**	.40

#1-16.	파트너 샘과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능력	4.00	5.00	**4.64**	.50
#1-17.	필요 시 (수업자료 준비, 수업 내용의 적절성 검토, 수업진행방법,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 등에 있어) 지도교수와의 소통/상의하여 도움을 받는 능력	4.00	5.00	4.55	.52

Note. 평균이 높았던 영역과 낮았던 영역의 평균은 각각 하이라이트, 밑줄로 표시함.

각 클래스 별로 2명의 예비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수업을 함께 준비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했으며,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수업을 더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맡은 각 클래스의 고교생들은 학업 성취도, 성격, 가정환경, 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었기에, 예비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했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과 감정을 교류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생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예상했던 학생 수/수준/배경(예 - 학생들의 영어 등급, 가정환경, 특이사항) 등의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III-6-3)과 '매주 변화하는 학생들의 마음상태에 맞추어 수업을 진행하고 진도를 조율하는 능력'(#III-6-4)은 상대적으로 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거의 없는 예비교사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은 가능했지만, 훈련기간 중 다양한 예시상황을 통해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수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점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예비교사 중 한 명은 향상된 능력에 대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수업을 거듭할수록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학생들의 실력을 제 기준으로 맞추어 다소 어려운 수업 내용을 계획했다는 것을 직접 수업을 해보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할수록 한 차시의 수업 분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예비교사 1)

교육실습을 통한 수업 준비 및 실행 과정의 반복은 예비교사들에게 학생 개인 맞춤형 수업 제공에 한층 더 다가설 수 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실습에서의 클래스 별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

총 6개의 클래스 수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고등학교 내에 지정된 교실에서 대

면으로 이루어졌다(#III-7). 학교 행사 또는 학생들의 개별 스케쥴로 인해 대면 수업이 불가한 상황일 때는 줌 또는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기도 했다. 11명의 예비교사들 모두 본인들이 선택한 수업 진행 방식이 효율적이었다고 응답했으며(#III-8), 6주 동안 주 1회(1회당 약 2시간) 수업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III-9) 모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함께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을 돌보는 과정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III-11) 대해서는 모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M = 4.45, SD = .52),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 저는 3학년 선배님과 한 팀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사실 과외나 학원 알바는 경험은 좀 있는 편이라 자신 있다 생각 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처음, 문법이나 독해중심이 아닌 수업을 진행해보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 더 막막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샘이 방향을 잘 잡아 주셔서 수업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수업 중 아이들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홀 클래스 컨퍼런스, 팀 3)

> 저도 3학년이긴 하지만 사실 학교 현장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몇몇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에 잘 적용해보자는 마음이었고, 파트너인 **샘과는 빨리 친해지기 위해 애썼고 이 부분이 수업 준비에 준 영향이 컸던 듯해요. 아이들을 대하는 법,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법 등 평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도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고, **샘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교사로서의 태도를 다시 정립할 수 있었어요. (홀 클래스 컨퍼런스, 팀 6)

팀 내에서 동료 예비교사와의 화합과 협력, 그리고 유대감이 수업 능력 향상과 자신감 향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도교수나 자문교사의 개입과 도움 역시 예비교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III-12) 알 수 있었으며(M = 4.64, SD = .50),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비교사들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었다:

>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서 수업의 전체적인 계획 마련, 수업 내에서 이루어질 만한 내용 복습 방법, 또한, 교사의 실무로서 학교생활기록주 작성 등의 부분에서 전에는 좀처럼 체감하지 못했던 영역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예비교사 2)

>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비교사 3)

>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았기에 더 나은 수업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비교사 4)

이는 동료 예비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도움과 심리적 안정감 이외에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관심 및 수업에 대한 세부적인 피드백 제공 역시 예비교사들에게는 필수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POC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교생들의 영어수준은 각기 달랐으나 모두 성적의 변동이 큰 편이었고, 이러한 성적의 불안정성에는 가정환경과 개인성향 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성취감과 흥미를 주기위해, 그리고 이것이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연구자와 자문교사, 예비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POC 프로그램 종료 시 성적표가 아닌 6주간 학생들의 발전사항(관찰일지)을 수료증, 상장과 함께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생활기록부 '진로활동' 내용으로 학생들의 활동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되었던 6주 동안 예비교사들은 매주 학생들이 잘한 점, 부족했던 점, 노력했던 점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이를 학교 현장교사들을 위한 버전, 학생 개개인을 위한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공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11명의 예비교사들은 모두 학생들의 향상도 및 발전가능성이 적힌 일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학생들의 성취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III-14).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비교사들의 의견이 언급되었다:

> 점수만 적힌 성적표보다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거나 부족했는지 상세히 적혀 있는 일지 제공이 더 효율적이었다 생각합니다. (예비교사 5)

>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성적향상에 앞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부터 향상시키는 것이었던 만큼 학생들에게 숫자로 된 성적을 제공하는 것은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실히 참여했지만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앞으로 영어수업을 더 열심히 안들을 것 같습니다. 성적은 낮아도 본인이 성취한 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관찰일지 작성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 생각합니다. (예비교사 6)

3) 교육실습 경험 전반에 대한 인식

6주 간의 교육실습을 마친 후, 현재 교육환경에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영어교사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III-16)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개인주의 완화 및 협업, 그리고 원활한 소통 능력', '다양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식과 온라인 도구 및 AI기술 활용 방법' 등을 필수적으로 꼽았다. 이 결과는 특히 코로나 19 이후 온·오프라인 수업이 일상화된 교육환경에서 예비

교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강화된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현재 교육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과 연계하여 진행된 교육실습전반과 관련하여(#III-17) 예비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으며, 핵심내용은 밑줄로 표시되어 있다(표 8 참조).

표 8

교육실습과 관련한 예비교사들의 자유 의견

응답 주제	응답 내용
실습의 어려움과 학생을 통한 성장	힘들었던 만큼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습 목표, 수업 내용 작성부터 생기부 전달사항 기록하는 법까지 모두 노력 없이는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귀중한 기회였습니다. 남고라는 것이 처음에는 많이 부담되었는데 다행히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만나 행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글을 쓰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4명의 학생 모두 오래오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의 어려움과 보람	사실 이번 학기동안 POC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를 꽤 받았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당장 수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강의, 과제, 시험으로도 벅차서 수업준비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듦과 부담은 그만큼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기에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 지금, 힘든 만큼 보람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깨달은 건데, **학생들로 인해 이 힘든 시간이 치유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실습의 실제 적용 가능성	앞으로 이러한 수업의 기회가 또 있거나 **교생을 갈 때 POC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수업 준비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교수와 동료의 지원을 통한 성장	모든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준비하고 진행하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격려해주시는 교수님과 함께한 파트너가 없었다면 과연 내가 이 활동을 끝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습이고 수업 진행인 만큼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을 압니다. 교수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도움주신 것 늘 감사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방학 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욱 진중히 고민해봐야겠다 다짐을 하였습니다**.
실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	해당 과목에 교육 실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생실습 전 학부 재학중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를 다른 전공, 교직 과목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수업에 잘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참여했습니다. 여러 일정이 겹치고 수정된 사항이 많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예비 교사로서 진로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학생들을 대하는 법, 수업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내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ICT 수업에서도 교수님이 매주 마다**

	팀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영해 수업해 주셔서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업과 실습을 통해 학생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람 있었습니다.
수업 경험을 통한 성취감 및 교사로서의 진로 확립	솔직히 처음에는 3학점이 남고, 마침 단체 채팅방 공지에서 ICT 수업 인원에 공백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학점이나 채울 겸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만 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아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다 보니 점차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른 여러 고민들이 쌓이면서 '아, 이게 정말 수업을 한다는 것이구나…'하게 되었고 교사에 대한 두려움도 느꼈으나, **막상 교실에서 학생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난 후에는 성취감을 느껴 다시금 교사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참여예비교사들 거의 모두에게 교육실습은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음이 분명하지만, 맡았던 학생들을 어찌 되었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책임감, 관심, 애정이 있었기에 수업에 대한 고민을 더욱 더 많이 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교사로서의 가치관 정립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경험한 예비교사들에게 앞으로 POC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실습의 기회가 또 있다고 할 때 참여 의사가 있는지, 또는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 묻는 질문에(#III-18) 한 명을 제외한 10명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요약하자면, 기초영어학력이 부족한 다양한 수준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비영어교사들의 교육실습은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교육실습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수업 계획 및 운영 능력,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 그리고 감정 교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동료예비교사, 지도교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 기초영어학력 향상을 목표로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한 학기 동안 역량강화 훈련과 이어진 6주간의 교육실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교육 역량, 특히 수업 계획 및 운영 능력,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 능력, 그리고 동료 예비교사와의 협업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교육실습 기간에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고교생들의 기초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적용하였다. 더불어 학생 개별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도를 시행하는 능력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역량강화 훈련과 교육실습은 예비교사들에게 ICT 기술을 활용한 수업 계획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했다.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참여를 도모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며, 다양한 교육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 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제한점은 참여한 예비교사의 수가 적고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실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교육 배경을 가진 학교들을 포함시키고, 더 많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교과목과 연계한 예비영어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실습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속적인 훈련 과정 개발이다.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는 ICT활용 기술 함양 또는 온·오프라인 수업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행정 업무 관련 지식 쌓기, 기초영어학력 저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예 –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 접근법의 중요성 강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현장 적용성 강화다. 예비교사 교육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모의해보는 시뮬레이션과 사례연구를 통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이는 예비교사들로 하여금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도움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은 예비교사를 위한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정교화다.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과 교육실습 과정에서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지도교수는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단계에 있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통해 예비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1a). *보도자료: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67

교육부. (2021b). *보도자료: 코로나19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 업무협약 체결*.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

ew.do?boardID=294&boardSeq=8939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3&s=moe&m=020402&opType=N

교육부. (2022). *「교육회복 종합방안」 안내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lev=0&statusYN=W&s=moe&m=0302&opType=N&boardSeq=90774

김경미, 신창원. (2023). 영어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경험 탐색: 제주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29*(4), 41-70. https://doi.org/10.35828/etak.2023.29.4.41

김서연, 이유진, 이보리. (2021).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모형의 적용과 효과: 사범대 예비 영어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연구, 38*(3), 119-148. https://doi.org/10.24211/tjkte.2021.38.3.119

김신영, 송미영. (2008). 예비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과 교육실습의 효과. *교육평가연구, 21*(1), 79-97.

김희규, 주영효, 엄준용. (2016). 중등학교 교사의 생애단계별 직무역량 분석. *교육문제연구, 29*(4), 163-189.

문은경, 신원석, 박인우. (2016). 중등예비교사들의 교원 핵심역량에 대한 인식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2*(1), 183-209.

박용호, 조대연, 배현경, 이해정. (2012). 중등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299-320.

백순근, 함은혜. (2007).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이 교육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0*(4), 1-29.

손원숙, 유신복, 신이나, 노현종, 박상현, 김동욱, 박민애, 김난옥, 이빛나, 신은진, 박정. (2021). 초등 예비교사의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타당화: 요인 분석 및 Rasch 모형의 적용. *교사교육연구, 60*(4), 683-698, https://doi.org/10.15812/ter.60.4.202112.683

안정현, 신수범, 설양환. (2021).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대학-학교 연계 온라인 교육실습 지원 플랫폼 개발 사례.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7*(3), 1007-1036. https://doi.org/10.15833/KAFEIAM.27.3.1007

오은지, 정성수. (2023).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논총, 39*(1), 1-28. https://doi.org/10.23103/dnueje.2023.39.1.1

윤소영, 이우진, 신수범. (2021).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실습 실행을 위한 실습지도교사와 예비교사의 요구분석 및 사례탐구. *교원교육, 37*(1), 1-24.

이숙자. (2008). *수업실습 프로그램이 교육실습생의 수업기술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이영희, 윤지현, 홍섭근, 임재일, 백병부. (2018). 미래교육 관련 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미래교육의 방향. *교육문화연구, 24*(5), 127-153. https://doi.org/10.24159/joec.2018.24.5.127

임유나, 홍후조. (2018). 교사 핵심역량에 대한 초.중등교사의 인식과 요구 비교 분석. *교육학연구, 56*(2), 1-31.

장경숙. (2023). 일반고 학생의 영어 학습부진 실태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교육연구, 86*, 113-142. https://doi.org/10.17253/swueri.2023.86.006

장찬익. (1990). 교육대학 교육실습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교대 논문집, 23*, 49-62.

정식영, 유봉호, 백명희. (2004).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정제영, 윤홍주, 김갑성, 강태훈, 류성창, 선미숙. (2016). 초등 신임교사의 직무역량 요구도 분석. *교사교육연구, 55*(2), 201-213. https://doi.org/10.15812/TER.55.2.201606.201

정혜영. (2008).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실습생의 교육 신념 변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1*(2), 235-257.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e-나라지표. (2023).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기준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9

Battelle for Kids. (2010). Framework for 21st century learning. https://www.battelleforkids.org/wp-content/uploads/2023/11/P21_Framework_Brief.pdf.

Kim, G.-H., & Seong, M.-H. (2022). The effects of a mentoring program in connection with colleg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in a non-face-to-face situa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8*(2), 1-20. https://doi.org/10.35828/etak.2022.28.2.1

UB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ip-watch.org/weblog/wp-content/uploads/2017/09/ubs-vierte-industrielle-revolution-2016-01-21.pdf

부 록 1

중등 예비영어교사 대상 설문지 문항

I. 다음은 6주간의 온라인 교육실습(POC 프로그램) 시작 전, 그에 필요한 예비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ICT활용 영어교육' 수업을 통해 진행된 training(훈련)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1.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 수강하기 전, 과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요?

(1)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다

(3) 잘 모르겠다 (4) 절실히는 아니지만 꽤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5)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2.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을 수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현 시대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업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교육봉사 점수/장학금 등의 이유, 중등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 싶어서 등)

3. 한 학기가 지난 지금,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과 같은 과목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원격교육 강화 훈련(training)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잘 모르겠다
(4) 어느정도(꽤) 필요하다 (5) 꼭 필요하다

II. 다음은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에서 다루었던 수업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한 학기 동안 'ICT활용 영어교육' 과목을 통해 다양한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주차별로 수업 시간 중에 다루어진 내용들이 예비교사인 본인의 온·오프라인 수업역량 함양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체크해주세요.

(1) Distance Education and Online Learning - Distance Education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그저 그렇다
4) 꽤 도움이 되었다 5) 많은 도움이 되었다

. . .

***이하 생략. 링크 참조(**http://naver.me/GyN5YCXF)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이유진(교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Email: jinnie@kangwon.ac.kr

윤택남(교수)
춘천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24328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126
Email: yoon@cnue.ac.kr

Received: May 5, 2024
Reviewed: June 5,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20, 2024